

필리핀 국립박물관

2014. 12. 3.

답변: 벨루가 고래 수입의 신청

필리핀의 마닐라 오션파크로 벨루가 고래(Delphinapterus leucas) 수입신청에 대한 우리의 전문가들의 의견과, 관련 과학적 논문과 연구, 당신이 편지에 첨부한 문서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 과학 기관으로서의 국립 박물관은 아래의 사실이 사려된다.

마닐라 오션파크가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벨루가 고래의 관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해 최선을 다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1)이 동물들은 매우 차가운 환경, 특히 북극과 아북극 지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필리핀과 같은 열대지방으로 그들을 수입하는 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고, 잔혹한 죽음을 유발할 수 있다; (2)벨루가 고래종은 세계자연보존연맹에 의해 멸종 근접종에 포함됐다; (3)벨루가는 CITES 2종 목록에 기재되었다. 이 목록에 기재된 동물들은 특별히 멸종으로 위협받지는 않지만, 그들의 생존을 위해 이용을 위한 거래는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4) 이 거래가 종의 개체 수 감소나 멸종을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CITES가입국으로써, 필리핀의 책임이다. 이는 필리핀의 야생동물자원보존보호법에 명확히 제시되어있다 (RA 9147) "조항 6. 야생동물 정보 -차후에 이 조항에서 명시된 모든 활동은 가장 사용 가능한 정보의 적절한 평가, 또는 그 활동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과학적 데이터, 또는 그 목적을 기반으로 장관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된 종 또는 아종의 생존과 그들의 서식지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장관은 연구를 통해 야생동물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이다.

이러한 우려들로 인해 국립박물관은 마닐라 오션파크의 벨루가 수입신청이 반드시 거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레미 반스, 세소 III

관장 IV

문의

전화 527-1215

팩스 527-0306